

아크릴섬유 생산 아시아 이동중...

선진국은 에너지 소비 및 환경규제로 감소 ... 공급부족에 시장불안

아크릴섬유는 1950년대 초 상업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에 연평균 생산증가율 22.8%로 급격히 성장했으며, 1970년대에도 연평균 7.5%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.

그러나 1980년대부터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해 1.0% 성장에 그치고 있다.

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원료 소비, 에너지 소비 및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198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을 단행한 반면,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인구 증가, 경제개발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크릴섬유 생산을 확대했다.

세계 아크릴섬유 생산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및 다른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기 시작해 2000년 266만 8500톤에 달했으며 연평균 1% 가량 신장했으나 최근에는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.

세계 아크릴섬유 메이저

(단위: 1000M/T)

구 분		생산능력
미 국	Cytec	79
	Mansanto	150
멕시코	Cellulosey Derivados	90
	Fibras Nacionales de Acrilico	34
	Fibras Sinteticas	42
이태리	EniChemi Fibre	170
	Montefibre	105
영 국	Courtaulds Fibres	80
터 키	Akrilik Kimya Sanayii AS	190
일 본	Asahi Kasei	98
	Japan Exlan	59
	Kanebo	30
	Kaneka	40
	Mitsubishi Rayon	104
	Toho Rayon	47
	Toray Industries	42
한 국	한일합섬	127
	태광산업	76
타이완	Formosa Plastics	54
	Tonghua Synthetic Fiber	54
합 계		1,725

1991년 세계 아크릴섬유 생산량은 합성섬유 전체 생산량의 13.5%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7.6%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.

세계 아크릴섬유 생산량은 1991년 238만톤, 2000년에는 266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11.9% 증가했으며 플랜트 가동률은 82%를 나타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25>